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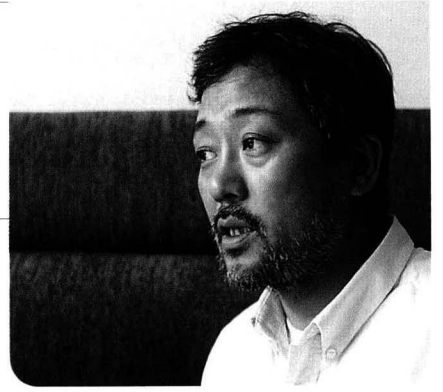
각자의 스타일에 대한 배려와 존중

번역가__부부가__사는__법



김난주(45), 양역관(47). 두 사람의 이름은 일본문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매우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름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유미리, 요시모토 바나나, 무라카미 류,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현대문학의 기수랄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우리말로 옮겨 국내에 소개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번역은 탁월한 작품 이해력과 섬세하고 정확한 문장을 바탕으로 일본소설 특유의 질감을 우리말로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학독자 중에는 김난주 씨와 양역관 씨가 번역한 책만을 좇아서 읽는 이들이 생겼을 만큼 번역계에서 두 사람은 실력을 인정받는다. 이들과 함께 일해본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두 사람이 번역한 원고는 따로 교열을 볼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한다. 그만큼 이들의 작업은 치열하고 진지하다. 실력 외에, 세간이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번역을 하는 사람이 국문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렇지 않아요. 국문학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 부부는 우리말에 대한 정밀한 감각과 자의식을 터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두 사람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문이다. 김난주 씨가 77학번이고 양역관 씨는 그보다 한 학번 빠른 76학번. 하지만 이들은 학부에서는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양역관 씨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강의실에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었고 김난주 씨는 소리 없이 책만 파고드는 ‘학구파’였다. 이들이 ‘운명적’으로 조우한 것은 대학원(경희대 국문과)에 진학해서였다. 양역관 씨와 김난주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김난주 씨가 제 근거리에서 있더군요. 자주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좋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저는 결혼이나 배우자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관점이 별로 없었어요. 양역관 씨를 보고 그냥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운명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만남이었지요.(웃음)”

서로를 자신의 짝이라고 확신한 이들은 이후 공부와 연애를 함께 병행했고 1989년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두 딸과 함께 경기도 고양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

번역에 입문한 계기는 두 사람 모두 어떤 특정한 책의 매력에 감응되었기 때문이다. 김난주 씨는 1990년 일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각수의 꿈》이라는 책을 원서로 읽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꼭 우리말로 옮겨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는다.

“그때의 희망은 말 그대로 독자로서의 희망이었어요. 번역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아직 없을 때였죠. 단지 우리말로 옮기면서 작품의 매력을 천천히 음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기회가 주어져 《일각수의 꿈》을 실제로 우리말로 옮기게 됐지요. 그것이 최초의 번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그 책이 바로 1992년 모음사에서 펴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선 중 하나인 《일각수의 꿈》이다.

양역관 씨를 번역의 세계로 이끈 것은 특이하게도 일본 저자의 저작물이 아니고 독일의 저작물이었다. 1990년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양씨는 신비주의에 경도돼 있었는데 그 무렵 읽은 독일 신비주의자의 책 《초감각적 세계의 인식》을 읽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곧 그 책을 일본인 친구와 함께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래서 나온 책이 《어떻게 초감각적 세계의 인식을 획득할 것인가》이다.

“많이 팔리지도 않고 특별한 평가를 받지도 못한 책이지만 저는 그 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요. 처음 번역한 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제가 몰입했던 신비주의의 단초를 제공한 책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하는 번역의 공통점으로 탁월한 작품 이해력과 정확한 표현, 그리고 매끄러운 문장을 든다. 이들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첫 번역부터 꾸준히 문학작품을 번역해 온 김난주 씨는 우리말에 대한 감각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일반 사람들은 번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외국어에 대한 독해력과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이예요. 당연히 번역을 하려면 외국어를 알아야지요. 외국어 능력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지극히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말에 대한 감각, 우리말 구사능력이에요. 그리고 섬세한 감성도 요구되죠. 우리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은 외국어에 능통해도 좋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양역관 씨는 그런 맥락에서 자신들 내외가 국문학을 전공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힌다.

“번역을 하는 사람이 국문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렇지 않아요. 국문학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 부부는

“...외국어 능력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지극히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말에 대한 감각, 우리말 구사능력이에요. 그리고 섬세한 감성도 요구되죠. 우리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은 외국어에 능통해도 좋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대한 정밀한 감각과 자의식을 터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두 사람은 모두 대학에서 부설한 번역가 양성과정에서 번역가 지망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 자리에서도 수강생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독해력이나 번역의 실무적인 지식보다는 우리말에 대한 감각과 자의식, 그리고 해당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어 우리의 번역출판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번역출판물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출판시장의 기형적인 구조가 양질의 번역생산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일부 출판사들은 한국에 꼭 소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부실한 값싼 책들을 마구잡이로 번역해서 쏟아냅니다. 그러다보니 값싼 오역의 번역출판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당연히 전문직으로서의 번역가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번역료도 일본이나 출판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편입니다. 작업 시간도 충분하지 않지요. 번역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은 참 중요한데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아무래도 번역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속성출판의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죠.”

부부라는 연 때문에 늘 같은 자리에서 언급되고 주목받은 두 사람. 그렇다면 두 사람은 상대의 번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난주 씨 번역은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봐도 문장이 참 정 확하고 유려해요. 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감탄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죠. 똑같은 원문을 제가 번역하면 김난주 씨 같은 표현은 나오 지 않을 것 같아요. 김난주 씨만의 문장감각이 분명히 있어요.”

“이이(양역관)의 번역은 사실 좀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경상도 사람처럼 말이에요(양역관 씨의 고향은 울산이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경직되어 있는 표현이 전체적으로 그 책의 묘미를 살 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거죠. 그리고 워낙 책을 많이 읽으 니 까, 인문적 소양이나 철학적 깊이는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그런 점들 이 번역자로서 참 부럽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부부이고 일본문학 전문 번역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동안 협업은 단 한 차례만 했다. 일본의 남성작가 츠지 히토나리와 여성작가 에쿠니 가오리가 함께 쓴 《냉정과 열정 사 이》를 두 부부가 맡아서 옮긴 것. 물론 남성작가의 글은 양역관 씨가 맡았고 여성작가의 글은 김난주 씨가 담당했다. 협업할 때 부부간의 의견 조율은 어땠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놀리지만 지명이나 인명 같은 고유명사 표기 따위를 나중에 통일시킨 것을 제외하면 우리 부부는 서로의 번역 원고를 한번도 맞춰보지 않았어요. 그냥 상대의 번역 스타일을 존중했 어요. 원래가 우린 그래요. 서로 그냥 인정하고 놔둡니다.”

양역관 씨의 말에서 두 부부 번역가가 얼마나 상대방의 작 업을 존중하고 신뢰하는지가 느껴진다. 김난주 씨는 현재 요시모 토 바나나의 작품을 번역중에 있고 일본 고전인 《겐지이야기》를 번역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양역관 씨는 일본어로 씌어진 중 국고전사전이라는 방대한 저작물의 번역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고되고 힘든 번역 일을 10년 이상 해오면서도 이들이 지치지 않고 왕성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일이 갖는 짜릿함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도반이 바로 옆에서 침묵으로 지켜보며 격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